27장 서원과 십일조

26장이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그런데 사람이 서원하는 것을 덧보태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언약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26장은 하나님의 서원이고 27장은 이스라엘 사람의 서원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레위기의 제사의 뜻을 더 풍성히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서원에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큰 원칙이다.

27장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드리는 서원(2-13절)과 집과 밭을 드리는 것(14-25절), 그리고 초태생과 십일조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26-34절).

서원에 대한 규정에서는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살라는 것이다. 초태생과 십일조는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원을 무르면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거기에서 풀려나려면 50세겔을 내야 했다. 그 당시 남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1세겔이었으니까 이것은 매우 큰 액수의 돈이다.

거룩함과 드림

레위기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하여 서원과 드림에 관한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27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20-6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의 세겔대로 얼마를 정하라고 하셨습니까? (2, 3절)
2. 생축 가운데서 어떤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셨습니까? (26절)
3.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 가운데서 얼마만큼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셨습니까? (30절)